민선4기 출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김 인 규 장흥군수

체류형 테마관광 개발
친환경 거점 자리매김

혁신 농어촌 건설 박차
노인복지시책에 역점

"그동안의 소중한 경험과 군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느린 세상 건강한 장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4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인규(53) 장흥군수는 민선 3기동안 달라진 모습이 없다는 인식을 불식 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자치를 꾸려 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군수는 민선 4기 군정의 방향을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는 '겸손하고 깨끗한 행정'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김 군수는 또 장흥군의 노령인구가 24%에 달한 점을 감안, 노인들이 여유롭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장흥이 농어업 산업구조와 생활권이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등 3개권으로 나눠져 있는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머무르고 쉬면서 체험할 수 있는 테마관광코스와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지역관광명소를 만들고,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해 주민소득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권(안양, 용산 관산, 대덕, 회진)에는 수문~남포~천관산~신리로 이어지는 정남진 관광벨트를 개설해 서남해안시대 웰빙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중부권(장흥)은 토요시장 전국 명소화와 제암산, 천문과학관, 목재문화체험장, 탐진강변의 수변녹지 생태공원을 연계한 체류형 건강 휴식공간으로 조성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어 "북부권에는 장흥댐과 물문화공원, 보림사 및 수인산성의 관광자원화와 '슬로우 월드'를 조성,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건강 휴양촌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고품질, 명품쌀 생산과 생약초 재배 등 특성화된 소득사업을 통해 가공, 유통, 판매까지 연계될 수 있는 혁신 농촌 장흥이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군수는 지난 3기 취임 때 밝힌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원칙이 지켜지는 깨끗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주민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어려운 군 재정의 긴축차원에서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를 과감하게 축소 및 통·폐합을 유도하고 부대행사 등을 줄여 나가겠다"며 "경제적이고 건전한 행사문화가 정착 될 수 있는 범 군민운동도 함께 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안정적인 군정운영을 위해 4년 임기내 어떠한 선거나 정당에도 뛰어들지 않고 오직 군정에만 열정을 쏟겠다는 본인의 소신을 피력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강 종 만 영광군수

재생에너지 산단 조성
일자리·소득원 창출

특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농업예산 30%까지 확대

"살맛나는 큰 영광을 건설하여 '다시 찾는 영광'으로 만들겠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군의회 의장과 도의회 의원을 거쳐 5·31 지방 선거에서 영광군수에 당선된 강종만(51) 군수는 "영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활기찬 지역경제 ▲특색있는 관광문화 ▲선진복지실현 ▲풍요로운 농어촌 등 민선 4기 4대 역점 시책을 제시했다.

지역 경제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강 군수는 "신 재생에너지 단지와 신 산업단지를 조성해 군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에 힘쓰겠으며, 농수축산 특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를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와 지방세 30%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클린 영광' 이미지 조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산업,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 및 농업의 새로운 소득 작목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유채 바이오 디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강 군수는 이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눠 먹기식' 지역개발보다는 지역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분석해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계획'과 '영광 비전 2015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7대 관광개발사업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주민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백수 해안도로변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및 노을 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또한 종교, 음식문화와 아름다운 해안경관이 함께 어울리는 수준 높은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군수 직속으로 농·수·축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 관련 예산을 점차적으로 30%까지 확대해 농업 관련 분야 사업에 대폭 투자하겠다"며 "(가칭)영광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쌀 경영안정자금의 지속적인 확대지원, 벼·보리 등 대체작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교육 활성화는 지역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미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68억원 및 원어민 지원사업, 영어타운 운영을 점차 확대하겠다"며 "특히 원어민 지원사업은 임기 중에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릴 뿐만 아니라 외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방학을 이용한 외국어 연수의 기회도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박 병 종 고흥군수

농수산물 특화산업 육성
지역발전 견인할 기업 유치

'분권형지방자치' 실현
장수체험시설 등 설립

민선4기 고흥 군수에 취임한 박병종(52) 군수는 "지역의 부(富) 창출을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차별화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를 위해 고흥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수산물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고, 국내외 유통업체와 납품제휴 등을 통한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흥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북부권에 청정식품 가공단지, 중부권에 영어체험도시, 남부권에 중형 조선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고흥군은 청정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비위생적인 것은 과감하게 행정조치 하고, 자체 청정식품 인증키를 만드는 등 군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겠다. 국내 일류 식품회사들도 고흥에서 생산된 제품은 행정적이나 위생적으로 최고로 인정해주는 청정식품 가공단지를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군수는 "지난 3대에 걸친 민선 지방자치가 군민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행정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며 "많은 군민들의 다양한 이해가 얽혀있는 문제에는 가급적 행정이 먼저 나서지 않고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을 존중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군수에게 집중된 권한은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과 읍·면장에게 넘기고 군수는 기업유치와 국책사업유치, 주민화합에 전념하는 '분권형 지방자치'를 기필코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공직사회를 향해 "위에서 시키는 일에 겨우 대책만 세우는 데에 불과한 '서기형 공무원'에 머물지 말고, 군민의 수요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실천형 공무원'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복지문제에 대해 "고흥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6.3%를 차지하고 있어 노년층의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노인환자의 병시중을 전담할 수 있는 '간병인'을 많이 육성하는 한편, '장수촌'이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장수(長壽)체험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 양성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은 박 군수는 "앞서가는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지만 능력 있는 인재가 많다"고 언급한 후 "리더십만 가지고는 변화, 혁신이 안 된다"며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장성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흥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에는 '명문고 육성'과 '장학사업 확대', '교육환경 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겠다"고 다짐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